

갈비뼈 부상에 50명 구한 30대 “진정한 영웅” 찬사

아시아나기 착륙사고... 탑승객·승무원 신속 대응 피해 최소화

사고 직후 비상구 열어... “사람들 빠르게 탈출 다행”

“아프긴 했지만, 다른 탑승객들에 비하면 저는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탈출해 정말 다행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6일(현지시간)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사고 당시 사고기 탑승객 벤자민 레비(39)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레비는 여객기 충돌 여파로 갈비뼈에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비상구를 여는 기지를 발휘, 50명 이상을 대피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미국 NBC방송 등 외신이 보도했다. 비상구 좌석 쪽에 앉아있던 레비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와 전

화 인터뷰에서 “조종사가 너무 빨리 하강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면서 “처음에 여객기가 바다에 닿으려는 순간 다시 여객기가 올라갔다. 이내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꽤 세계 부딪혔다”면서 바로 비상구를 열어 승객들이 빠져나

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지역방송 WSB-TV에 따르면 레비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X-Ray 검사 결과 갈비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승무원들과 승객들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한발 앞서 승객들 전원을 탈출하도록 했다면 “진정한 영웅”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CNN방송도 300명 이상이 탑승했던 사고기의 충돌 당시와 이후 화재 규모를 감안할 때 사상자 수가 놀라울 만큼 적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긴급 상황 대비 승무원 교육과 승객 행동 방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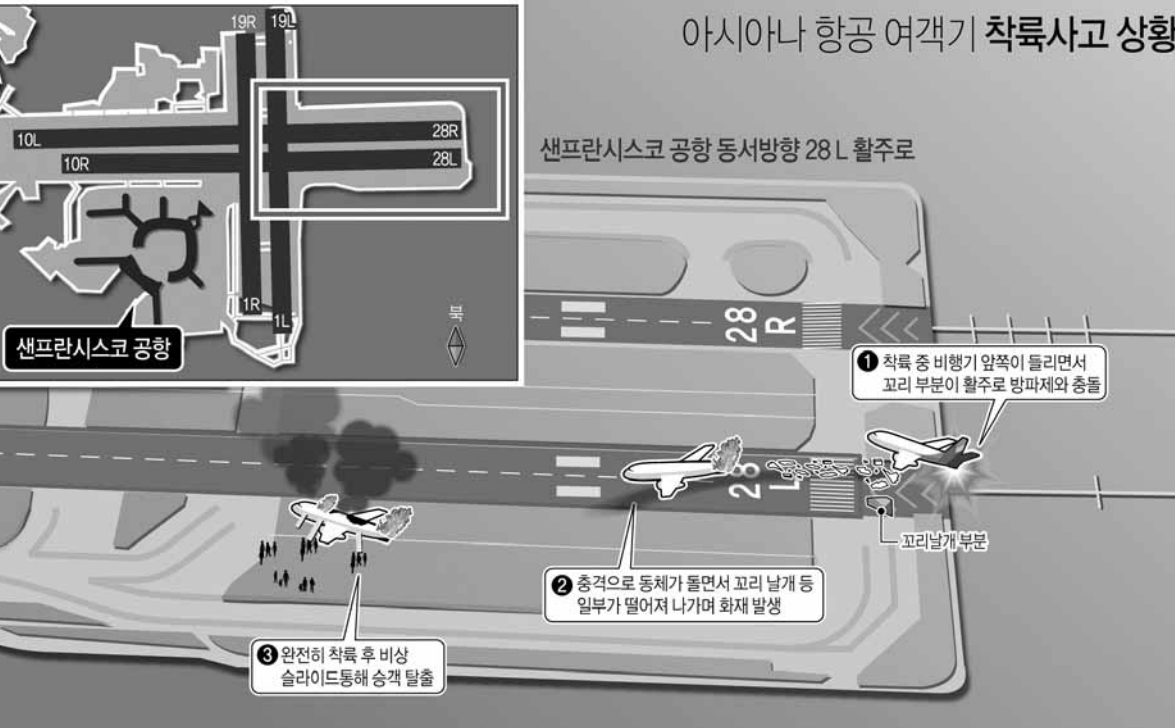
기체 결함·조종 미숙 ‘분분’

아시아나 사장 “관제탑 교신내용 착륙후 이뤄진 것”

사고 원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 여객기의 착륙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착륙 상황을 토대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면 사고기는 착륙하던 중 비행기 앞쪽이 들리면서 꼬리 부분이 활주로와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기체가 활주로로 이탈하면서 화재가 발생, 비행기 뒷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상공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조종석 바로 뒷부분 객실에서 누락된 채 있는 곳까지 동체 상부가 완전히 소실됐다. 기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꼬리 날개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는 장치 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항 인근 방파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비행기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지나치게 낮게 비행을 했고, 활주로와 샌프란시스코 만을 구분하는 방파제와 충돌해 꼬리 날개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다. 조종 미숙도 사고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다. 조종사가 활주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일찍 고도를 낮춘 이유는 조종 미숙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현재 진행 중인 공황부지 확장 공사가 사고를 가져왔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드슨강의 기적’으로 유명한 전 여객기 기장 체슬린 솔렌버거는 샌프란시스코 K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원인이자 속단 하기는 이르지만, 분명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을 방파제로부터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상황

사고 원인 규명에는 여객기 기장이 착륙에 앞서 관제탑과 나눈 교신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은 사고 여객기 기장이 착륙에 앞서 관제탑에 응급 차량 대기를 요청했다며, 착륙 전에 비행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은 여객기는 비행 중 특이사항이나 고장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고, 응급 차량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미국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운명투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제탑과 사고 비행기 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긴급

교신 내용은 사고 전이 아니라 착륙 후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고 비행기가 착륙 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관제탑에 비상조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사고 원인 조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슬로시티, 장흥 ‘탈락’ 신안 ‘보류’

〈유치·장평〉 〈증도〉

국제연맹 심사... 담양 창평·완도 청산도는 재인증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국내 슬로시티(Slow City) 4곳에 대한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재인증 심사에서 장흥군이 탈락하고 신안군은 보류됐다. (관련기사 10면) 7일 한국슬로시티본부에 따르면 국제슬로시티연맹은 담양 창평, 장흥 유치·장평,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 등 4곳을 대상으로 재인증 심사를 벌인 결과 담양 창평과 완도 청산도는 행정력과 상표 가치 상승 등을 이유로 5년간 재인증했지만 장흥은 탈락, 신안은 보류 결정을 내렸다.

편성되지 않는 점 등을 재인증 거부 사유로 들었다. 신안 증도는 슬로시티 지정 2년여 만인 2010년 3월 증도대교가 개통되면서 섬으로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잃은 데다 외지인의 방문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애초 지정 취지가 무색해진 점을 들어 1년간 재인증을 유보한 뒤 올해 말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흥군과 신안군이 그동안 벌여온 ‘슬로시티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 등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국내 12개 슬로시티 중 회원자격 상실, 즉 퇴출이 결정되기는 슬로시티 지정 6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슬로시티본부는 지난해 12월 부터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번역을 거쳐 이탈리아에 있는 국제슬로시티연맹에 보냈으며 지난 5월 9일께 최종 심사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지역환경·자연조건, 생태, 음식문화, 주민 반응 등 6개 분야, 71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벌였다. 심사에서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장흥군의 관련 사업이 슬로시티와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부족하고, 슬로시티 업무를 별도로 부서가 아닌 문화관광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슬로시티협회의 별도 예산이

장흥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심사는 실사를 나오지 않고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이뤄진 것인 데다 평가 기준이 유럽 중심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올해 계획된 프로그램은 차질없이 진행하면 재심사 또는 재신청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슬로시티본부 관계자는 “심사 기준이 유럽과 서구적 시각에서 이뤄지다 보니 한국적 특성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탈락 또는 보류된 지역의 구제 방안 등에 대해 국제슬로시티본부와 협의해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울 전남 유입인구 10명 중 6명 광주 외 타지역에서 전입

38.3% 수도권... 귀농 다수

울해 전남에 터를 잡은 전입자 10명 가운데 6명은 광주를 제외한 타지역에서 옮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국내 전입자가 2596명인 현황 분석 결과 광주가 1101명으로 42.4%를 차지했고 경기(492명), 서울(382명), 인천(120명) 등 수도권이 994명으로 38.3%, 충청권(128명) 4.9%, 영남권(116명) 4.5% 순이었다. 서울 등지의 귀농·귀촌 인구도 많지만 여전히 동일 생활권이라

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의 전남 이주가 많았다. 이주 유형으로 귀농 등 전업형이 1444명, 전일생활형 967명, 요양형 185명 등이다. 직업별로 자영업(846명), 회사원(544), 공무원(94), 교사(43), 예술인(19) 순이다. 이주자 세대별 평균 가족 수는 1.86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남지역 인구감소는 지난 2008년 이후 연간 1만명 이하로 감소폭이 줄고 있다. 지난 2008년 이전까지는 연간 2만~3만명이 줄었으나 이후 꾸준한 감소해 지난해는 4700명에 그쳤다. /광주특파부 kroh@kwangju.co.kr

“답답한 상황, 소식 알려달라” 발동동

가족들 표정

7일 오전(한국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여객기 사고가 발생, 사상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아시아나항공은 침묵한 분위기 속에 사태 파악을 위해 급박하게 움직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5시에 직

인들을 소집,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 있는 종합통제센터에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본사 운항통 1층에는 피해자 가족 센터가 마련됐다. 본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대기실을 마련해 놓고 가

이 방향을 맞아 미국 친척네로 놀러 갔는데 도착할 때가 돼도 연락이 없어 걱정하던 중 딸에게서 사고가 나서 조금 다쳤고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딸이 어깨랄 다리를 다쳤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려고 찾아왔다”며 “정신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고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이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딸이 위에서 불꽃이 튀고 날개가 부서졌다

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 각 본부와 산하 부서 관계자들이 집중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6시 40분에는 팍팍한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 및 사고 원인에 대해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두진 아시아나항공 홍보담당 상무는 오전 7시에 취재본부를 직접 찾아 “이날 오후 4시30분 사고 수습팀을 현지로 보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3년도 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원만 향우장학재단은 재광 영광군향우회가족 중에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 I.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원자격: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중, 고등학교 ~ 대학생
 - 단, 2012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함
 -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황 등 고려
 - 선발예정인원: 총 22명 중 광주지역 11명, 영광지역 11명(영광군에서 선발)(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 II.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 기타서류: 통장사본(본인 명의로 한함)
- III. 선발일정**
 - 서류접수: 2013. 7. 1(월) ~ 7월 31일(수)
 - 최종선정: 2013. 8월경 발표(2013년 장학 회보에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식: 2013. 9월 초 영광군민의 날(예정)
- VI.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접수(7월 31일까지)
 - 신청 및 문의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404 영주체육관 117호, 사무총장 강 대 의
 - www.edaynews.com나 '재광 영광군향우회카페'
 -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 yug42@naver.com(edaynews@paran.com)으로도 장학신청서 접수를 환영합니다.
 - T. 010-4192-5182 / 062-673-0419
 - 신청양식: 신청서 상단 우측 별도 양식 참조
- V.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장학생을 위한 간략하고 최소화된 서류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영광군민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재광 영광군향우회가족중 광주시민은 향우장학회사무실로 우편접수하셔도됩니다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구한미소점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 일요일·휴일·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8013호~26호로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 특허 제10-0562035호 /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한국건축시험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 달렌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일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kr 또는 이파일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